

濟州島의 觀光開發과 地域文化保全을 위한 提言*

— 觀光人類學的 立場 —

全 京 秀**

I.

지난 몇개월 동안 부여된 주제를 놓고 필자는 극단적인 양가감정의 대립을 경험해왔다. 특정지역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실질적인 주제를 목전에 두고 학술적 차원의 논의 즉 개념 정의와 현상설명을 위한 방법론의 확보 가능성 여부,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기왕의 논의에 대한 이론적 평가 등등의 순서들을 열거해야 할 도식적 의무감으로부터의 해방감이 하나이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 걸도는 소리를 또 하는구나”하는 한 가닥 기대로부터의 체념과 현실을 의면하는 소위 학문적 태도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가 뒤섞여 필연적으로 날아오게 될 압박감이 또 다른 하나이다.

주어진 해방감을 만끽하는 것 보다는 닥아올 압박감으로 부터의 피신 또는 그에 대한 대처방안의 강구 노력이 필자로 하여금 전공분야인 인류학의 응용이라는 전략을 시도케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두려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류학이란 학문도 일천한데 기초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응용은 무슨 소리며, 관광? 관광인류학은 또 어디서 굴러온 것이냐? 라고 제기할 수 있는 질책에 대한 필자의 방어태세가 그리 단단하지 못한 점이 스스

* 본고를 쓰는데 도움말씀을 주신 東國大學校 吳洪哲, 서울大學校 鄭英昊 두 분 선생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본고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소관이다.

** 서울大學校 人類學科 教授

로를 두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간 경험들이 말해주듯이, 이론과 실제의 호혜적 관계에 의한 자기 계발적 과정을 기대하면서 “관광인류학적”관점을 피력하고, 그 관점에 근거하여 제주도 관광의 실제문제를 거론하는데 일조가 될만한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지면관계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지를 피력할 순 없지만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의 추세에 속도가 붙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생활의 중요부분에 점점 더 큰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이 관광이라는 문화현상이며, 국가부문에서는 이를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관광이란 것을 인간의 여가, 여행, 놀이, 오락, 경제 등의 하위 문화들과 밀접한 관련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하나의 또 다른 하위문화로 간주하고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류학의 입장에서 문화현상으로서의 관광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인류학내의 그러한 분야를 관광인류학(anthropology of tourism)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Smith 1977; Graburn 1980; 서경립·고남욱 1978 : 437 참조).

관광인류학의 두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이 대별될 수 있다. 첫째, 관광의 본질과 관광객의 행위·동기 그리고 관광객과 현대 세계체계의 진화단계 및 관광의 다양성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관광지 주민과 사회 및 관광객—주민관계의 본질 내지는 관광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Graburn 1983 : 10)

본고에서는 상기에 제시된 두 가지 주제중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왕에 연구 보고된 자료들로부터의 비교문화적 시각을 원용하여 제주도와 제주도 관광이 처한 현실 파악을 위한 안목 제시 및 특히 관광영향의 부정적 측면의 검토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논리의 저변에는 항상 관광이란 것이 갖는 지역구속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세계체제적 맥락속에서 제주도가 속한 한국이라는 지역의 특성 즉 적어도 제 3세계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관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검토하는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속적인 삼단계의 논리적 과정의 틀 속에서 전개 된다. 관광이란 주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에 본고의 기본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관광이란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는 이론적 준거틀의 제시가 본고의 기초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통찰력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격조높은 관광정책을 기대하기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주체인 주민을 소외시키고 그 문화를 황폐화 시킴으로서 관광산업의 근거마저 망실하게 되는 종말을 직면케 될 것이라는 비판적 전체를 비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뒷받침해 보는 것으로서 방법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론적 준거틀의 제시와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실제부분에 응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문분야의 응용이라는 차원의 사명에 대신하는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24곳 중의 하나로 선정된 濟州島 (Anonymous 1975 : 36)를 놓고 정부·기업·주민 모두가 전전공공하며 관광발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의지의 표현들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관광전체를 겨냥한 비판적 안목을 제시해 보는 것이 본고를 쓰는 필자의 의도이다.

이 부분에 관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모두가 더 이상 제주도에 무엇을 만들려고 시도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다.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때가 있다는 생활철리를 돌이켜 보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신들의 고향” 또는 “신화의 땅”으로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는 제주도가 신들의 음덕으로 그리고 신화의 애깃거리 덕분에 신비함이 보존되고 그 신비함을 자원으로 하여 먹고 살고 있다면, 신들이 놀라서 다른 곳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신화가 속물로 변하지 않도록, 이구석 저구석 모조리 후벼파고 찢라내고 밀어 붙이지 말고 인간들은 조용히 가만히 숨죽이고 지나가면 그만일 것이다. 신들을 모조하

여 형상을 바꾸어 놓고 울타리로 둘러쳐서 담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현하고 싶은 대로 현현하도록, 인간은 그저 스스로만 다스리고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제주도에 추진되고 있는 관광종합계획의 한 발짝앞을 내다보면, 관광산업의 개발에 적응된 문화 및 자연보호의 전략 및 결과가 바로 신성하고 생명있는 자원의 상품화 및 화석화이며 생동감을 말살시키는 동물원화인 것이다. “특히 제 3세계에서는 자연·문화자원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자원의 보호라는 것이 관광객 유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Olwig 1980 : 23)는 지적이 결코 타산지적이 아니다.

자원의 보존과 개발이란 측면에서 보면 관광이란 것은 하나의 기생적 현상일 수 밖에 없다. 즉 지역문화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의 보존이 전제되지 않고는 관광개발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개념상로나 실질적으로나 개발의 의지가 보존의 논리를 앞설 수 없는 것이 순리임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자기개발적 보존이라는 차원의 한 변수로서 관광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관광개발이란 미명하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파괴행위를 더이상 개발이란 범주속에서 비호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속도에 맞추어서 전체가 자멸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죽인 일각에서는 “80년대 후반기의(제주관광은) 대중관광시대로 전환되어 국민보건 휴양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의미까지 내포된 건전한 국민관광의 시대로 될 것은 필연적 사실이며”(김태보1985 : 331), “제주관광에서 보여줄 대상은 살아움직이는 생활전체(이교)…… 민속놀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에는…… 숙련된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실연자들은 민속촌의 주민으로서, 또 관티인 겸 기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시시간은 약 2시간에 걸쳐 무료하지 않게 체계를 갖추어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돌아갈 때까지 제주도의 생활상을 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극화하여 보여주는 것”(서경림·고남옥 1978 : 455-456)이라는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생활전체를 동적으로 생동감있게 보여줄 주민은 어디에 있으며 대기시켜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 응하게 할 사람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과연 사람이 그렇게 취급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신앙대상이 상품화되고 주민들은 위락시설의 막일꾼이나 되는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누구가 인간성 회복을 맞본단 말인가? 현재 당면한 인간성 상실과 인간의 가치가 상품으로 실추된 이 현상에 대한 탐구와 깊은 반성 없이는 낙원스런 국민관광시대는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국제관광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이 빠른 속도로 이미 깊이 진행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부터 쉽사리 유추해낼 수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현상이 바로 국제관광지 제주도의 유곽화현상이다. 1985년에 발행된 일본 관광백서에서는 “1983년 일본인 국제관광자 4,232,246명중 1,407,880명(33.3%)이 여성관광자인데 그중 방한일본인 여성은54,306명(3.9%)에 불과하다”(손대현 1985:9). 그리고 1984년도 일본인 관광객의 해외 관광방문지를 여러지역으로 비교해 보아도 상기와 유사한 현상이다.¹⁾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지난 1984년 5만명 선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그중 4만 5천명 이상이 일본인 남자단체관광객이라고 추제되고 있다. “이들 일본인 단체관광객은 대개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아온다. 관광코스는 기껏해야 한 군데 정도 볼까말까하고 나머지 일정은 단체연회와 이 연회에서 공공연하게 맺어진 한국인 접객여성과의 시간을 메꾸다 간다고 한 여행 알선업체 직원은 털어놓는다. 제주시의 신제주 구역내에는 관광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식당이 2개소가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일본인 단체관광객의 전용요정이다. 이들 요정에서는 3백여명의 일본인상대 접객여성이 ‘일

1) 지역별	성별	男	女
	미국·유럽	51%	49%
필리핀	82%	18%	
대만	91%	9%	
한국	94%	6%	

〈1984년도 일본인 해외관광 현황〉(배인준 1985:351)

하고' 있다. 인구 16만의 제주시내에만 이밖에도 1만 2천~3천명의接客업 소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만을 위한 주거지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 주택가에 파고들게 돼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배인준 1985 : 351-352). 따라서 외부에서 보면 단순한 관광산업이지만 제주도 내에서 보면 제주도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모색이 바로 관광에 의해서 시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주도의 자연·문화 그리고 사람이 바로 국제관광이라는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제주사람이나 육지사람이나 대부분 떡고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제주도를 선봉으로 내세운 한국관광의 좌표라고 생각된다. 떨어지는 떡고물만 좇아 먹다가 그것도 모자라 떡에 붙은 고물까지 다 끊어내리다 보면, 떡은 불품없이 발가벗고 끝내는 얼어먹을 고물 한 톨 남지못하는 형상으로 버림받게 된다. 신들로부터 제앙이 내리면 의지인들은 떠나면 그만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모든 제앙은 제주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잘 토라지는 신이 토라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신구간”도 지키지 않고 건물 고치고 이사하는 일들이 결국 신들을 토라지게 만들까 두렵다. 신구간 안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신들에게 노여움을 주지 않는 경성이 요구된다. 죽 술에 빠져죽은 설문대할망의 원혼을 달래줄 여유도 못 갖고, 구삼신 할망을 쫓아낼 결투도 없이 떡고물 줍기에 너도 나도 휘둘러 치면 관광이고 돈이고 뭐고간에 모조리 제주 바당으로 마당질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는 손님들(관광객)도 심방의 새드림을 받아야 신이 내려오는 길을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들고 오는 잠귀들도 쫓아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III.

머릿속에 그리는 꿈과 발등에 떨어진 불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인식하고 필자는 제주도 관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런 항목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비판과 경험적 자료와의

비교 검토 속에서 계속적인 논의를 요하는 것이다.

첫째 주민의 소득과 복지 및 지역개발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과 그 핵심을 이루는 정책에 주민 참여의 개념과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민참여란 “그 지역 전체의 정치적·경제적 과정에 주민이 직접 관여하는 것”(White 1982 : 17)이며, 관광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단계는 세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계획수립기초와 과정 및 정책확정에 이르는 준비기간, 확정된 정책이 시행 및 대단원을 짓는 정책수행기간, 그리고 시행된 정책의 사후점검 및 재조정에 이르는 평가기간이 그것들이다. 그 전과정에 주민대표들이 주민의 필요요구를 위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기왕에 제시된 예 중의 하나가 “지역협동체 호텔의 건설”(Dustin 1984 : 159)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주고, 주민이 관광사업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주민참여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관광이란 것도 결국에는 인적자원에 의해 관리 및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원의 소모 및 소비창출만을 유도하는 관광정책에서 탈피하고 자원의 이용 및 재생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교육적 차원에서 관광객 자신이 관광자원의 소비자임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자원의 이용 및 재생산자임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객은 관광자원의 소비자가 아니라 자원의 이용자이며, 건전한 이용이 보다 나은 자원의 재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관광교육의 관점 도입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관광지 주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관광객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태도로부터 소비자로 취급하는 태도에의 변화는 관광이란 것의 전체 모습을 바꾸어 놓게 된다”(Nolan & Nolan 1978 : 2)는 관광객과 주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관광이란 현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올바른 교육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자연 및 문화자원의 소극적 보호정책 및 관광자원 수단화의 보호정

책을 탈피해야 한다. 제주도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볼 때 약 15종 정도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과 7종 정도의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들은 고립된 도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지역만 섬처럼 만들어 두고 주위의 대부분을 개발이란 명목하에 파괴해버린다면 생태계 내의 순환과정을 통한 오염 루트는 철망과 쇠창살을 해둔 곳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project)의 정신과 유사한 형태의 적극적인 환경자원보호 정책을 고려해 봄직도 하며, 손질해 가면서 환경자원을 보호하는 환경보전의²⁾ 개념이 그러한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관광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학술조사가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서 이후 정기적인 관광정책평가의 기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³⁾와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s Assessment)⁴⁾를 종합한 관광영향평가(Touristic Impacts Assessment)⁵⁾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김태보, 1985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Ⅲ) : 관광, 「탐라문화」 4 : 315—331.

- 2) 개념의 세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이 일반화되어 있다.

保護(Protection)	{	保存(Preservation) : 인간이 환경을 전혀 손대지 않고 보호하는 것
		保全(Conservation) : 인간이 환경을 가꾸어 가면서 보호하는 것
- 3) 환경평가 및 평가서 작성순서는 개발계획(안)의 인·허가 신청시 환경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의 검토→초안평가서의 작성→평가서의 공표 및 지역주민이나 관계행정기관 등으로 부터의 의견청취→최종평가서의 작성→결정권한자에 제출→공표등의 과정을 거친후 최종의사를 결정하게 된다(환경청 1983 : 16).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검토를 요하는 環境事象의 종류로서는 기상의 변화·대기오염·소음과 진동의 발생, 악취의 발생, 수질오염, 水象의 변화, 생물생태계의 변화, 지형의 변화, 폐기물의 발생, 경관의 변화, 역사와 문화재의 산일·파괴 및 소멸, 기타의 사회 및 생활환경변화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전제서 : 23).
- 4) 문화변동을 측정하는 기본조사가 요구되며, 그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반요인에 대한 검토의 개략적 개념으로서 아직 세련되지 못한 개념이다.
- 5) 문화영향평가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략적인 아이디어만을 제시해 본 것이다.

- 배인준, 1985 한국속의 일본색. 신동아 1985년 8월호(통권 311호) pp.340—353.
- 서경립, 고남옥 1978 제주민속촌 조성에 관한 연구: 특히 관광적 측면을 중심으로, 「지우 변시민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지우 변시민선생 회갑기념 논문간행위원회 편. pp.437—460.
- 손대현, 1985 '88 서울오륜(Olympics)을 통한 “韓國觀光의 再發見”을 위한 모색. 觀協 1985년 11월호(통권 154호), pp.7—15.
- 환경청, 1983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환경영향평가자료집, 8권 (1983.11). 서울: 환경청
- Anonymous, 1975 Faraway Places: Special Report. *Newsweek*, July 14 1975. pp. 33—43.
- Dustin, Frederic H., 1984 Cheju Island's Human Resources in the Expression of Tourist Accomodations, 「탐라문화」 3 : 157—176.
- Graburn, Nelson H.H., 1980 Teaching the Anthropology of Tourism.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32(1) : 56—68.
- _____ 1983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 : 9—33.
- Nolan, Sidney & Mary Nolan, 1979 Variations in Travel Behavior and the Cultural Impact of Tourism. *Tourism and Behavior*, ed. by Mario Zamora et al. Williamsburg, VA: Dept. of Anthropology, College of William and Mary. pp. 1—17.
- Olwig, Karen, 1980 National Parks, Tourism, and Local Development: A West Indian Case. *Human Organization* 39(1) : 22—31.
- Smith, Valene, L. 1977 Introduction.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ed. by Valene Smith. Philadelphia, Pen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1—14.
- White, A.T., 1982 Why Community Participation? *Assignment Children* 59/60. Geneva: UNICEF. pp.17—34.

제주도 관광개발과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제언 : 관광인류학적 입장

발표자 : 전경수(서울대)

토론자 : 서경림(제주대)

좌장(장주근) : 역시 결론은 마지막에 제시된 4가지 대책 방안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세로 판단했듯이 개발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 신의 고향을 신의 고향으로 그대로 보존하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주 대학의 서경림 선생님께서 토론 말씀이 제시됐습니다.

서경림 : 전경수 교수님께서 상당히 제주도를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열정적인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좀 곤혹스럽게 느끼는 것은 이 내용 전체를 제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내지는 비유적인 용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주제의 논의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은 현실 있는대로 받아들이면서 논의를 전개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현용준 선생님 발표하신 것과는 달리 여기에는 많은 견해의 차이라든지 보는 각도가 다른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저더러 관광문제의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일천합니다.

관광의 본질은 다른 지역의 풍물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 해서 거기에서 향수도 느끼고 또는 환상도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향상 또는 자기승화를 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광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객과 현지주민간의 갈등, 이것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교수님께서 말씀 하시는 관광인류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광객과 현지 주민간의 갈등 관계,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

이나하는 문젠입니다. 이것은 관광인류학의 중요한 관심사로서 계속 아마 앞으로 연구 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에 있어서는 대등한 인격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요소이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질 때 거기에는 많은 문제, 보존과 또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결들여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관광인류학 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광정책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어서 관광 가치, 다시 말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곳에 가서 불만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역시 그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수용태세 이것까지도 실은 점검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주 복합적인 요소를 먹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관광객이라는 것은 많은 비용,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 지역을 본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우린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전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중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보아서 우선 15페이지를 보면 제주도를 이른바 지금 Newsweek지에서 보신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 또는 ‘신화의 땅’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신들의 음덕으로 그리고 신화의 얘기거리 덕분에 신비함이 보존되고 그 신비함을 자원으로 해서 먹고 살고 있다면” 하는 이 전제는 끝까지 이러한 논조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요걸 제가 조금 문제시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서는 이 전제가 너무 과장된게 아니냐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물론 많은 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제주도에 득실거리고 있는 지는 제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신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과거의 척박한 땅에서 그야말로 강인한 정신을 갖고, 근검 절약하고 그리고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후손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근검 절약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에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몇가지가 여기에 바로 첨가되지 않으면 안될게 아니냐, 이

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교수님께서서는 제주도 특히 민속문제를 놓고 가만히 놔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이점에서는 가만히 놔둬서 될 것이 있고 또는 보존 보호하지 않으면 곧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좀 선별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관광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또 제주도 민속문화의 보존을 위해서도 역시 보존,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관광 정책상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소홀했다고 하는 측면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관광객엔 여러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은 문화인류학자처럼 제주도 사회에 들어와서 어촌이라든지 산촌에 들어가서 제주도의 생활을 그 습속을 현실로 피부적으로 느껴볼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의 사람들과 그러한거 하고는 크게 아랑곳없이 제주도를 2박 3일 내지 3박 4일의 과정에서 제주도를 한 3년쯤 살아야만 제주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일 간에 걸쳐서 본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정점 말하자면 하일라이트만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하는 측면입니다. 그외에도 제주도를 찾는 사람중에는 문화, 민속 이런거 하고는 관계없이 오로지 주색잡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두를 받아들이는 관광정책의 차원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 행정 도당국 정책 책임을 맡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관광자원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다수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가 지닌 모든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결국은 부닥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제대로 잘 진열해서 보여주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관광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 기타 수용 시설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관광 자원이 지닌 그

의미내지는 특성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관광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관광 자원의 문제는 그 자원이 지니고 있는 대상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예컨대 민간의 흩어져 있는 민화를 우리가 두고 봤을 때 그것을 피속에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서 표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알맞은 장소에 배열해 가지고 멋있게 한다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주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까라는 개발과 보존은 대립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얘깁니다. 오히려 이 양극단을 대립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양쪽을 조화하는 그러한 방향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보존을 위한 손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6페이지 마침 저의 논문을 지적을 해주셔서 가지고 회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민속을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축약 또는 집약해 가지고 2박 3일의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느냐하는 문제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관심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속촌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조화를 여기에서 찾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교수님께서 인용한 논문은 제가 7년전에 쓴 논문입니다. 그 동안에 어느 한 분도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고 있다가 마침 전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줘가지고 저로서 상당히 그 학문했던 보람이 남는다마는 문제는 관광객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 여러 가지 대등한 인격 문제, 이러한 문제와 같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현지 주민들이 이것을 너무 빼놓아지게 보시지 마시고 제주도의 전통있는 문화를 자랑스럽게 긍지를 갖고 내보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지금 여기서 표현하듯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는 지금 성읍 민속촌. 아직도 너무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러한 발상을 얻은 것은 민속촌 지정관계 때문에 많은 현지 주민들이 고통

을 겪었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직접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관광객에 내보이고 거기서 마을의 소득을 얻고 마을이 지닌 올바른 가치를 내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실은 그 마을 사람들 스스로 민속 놀이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가서 보았고, 물론 그 당시 선각자들이 후에 좀 사라지고 있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저는 현지답사로서 확신을 했던 것을 썼던 것입니다.

전교수님께서서는 사실은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결론으로 들어와서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관점, 그거하고는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열성스러운 나머지 처음에는 약간 신들린 것처럼, '신의 고향'을 얘기했었으니까, 말씀하시다가 결론에 가서는 좀 본 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정신을 잡으시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관광 개발에 있어서 현지 주민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 두 번째, 관광문제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결국 교육적인 차원 또는 재생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 세번째에 가서 생태계조사, 문화 생태계라든지 관광영향이라고 하는 측면을 두고 두고 강조한 것은 그야말로 저로서는 전교수님의 그 중요한 해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면서 저의 토론을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지금 서선생님 토론에 대해서 전선생님께서 약간의 견해, 답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경수 : 제가 정신나간 사람으로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걸로 됐습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에 저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까, 코멘트라고 할까 요것부터 거꾸로 올라 가겠습니다. 성읍 민속촌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성읍 민속촌의 경우 말씀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15페이지인가 거기에 선가 신들을 강조했다라는 가정, 그것하고 서로 개념상 사실 상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선생님 말씀에 신들만 강조하지 왜 사람은 여기에 서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이 사람들은 왜 포함하지, 중요시하지 않았느냐

나라는 그런 얘기가 한 손에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읍 민속촌의 사람을, 이런 척박한 데서 살아온 이런 사람을 동물원의 원숭이로 만들어선 되겠느냐 하는 두 가지의 고민, 이 사이에서 어떤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한 모순점이 저에게 느껴지는군요. 제가 원 본문을 잠깐만 읽어 드릴까요. 아까 서교수님 인용하신 그 부분에 이어서 조금 더 선생님 말씀을 인용해보면은요. “관광 대상이 되어 많은 관광객이 쇠도할 경우, 재래의 농경생활에 익숙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민속촌내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들은 재래의 생활 양식의 일부를 긍지를 갖고 보일 수 있고 관광객과의 대화도 순조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주장의 논리를 펴고 계시는 데 과연 주민들이 그들의 상대적 가난을 자각하고 자신들이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때도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관광객들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자신들의 불편과 무질서를 방치한 채 과연 침입자와 순조로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의문은 제주 성읍리에서 목하 진행중인 주민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시 그걸 기록을 해 놓으신 걸 제가 인용을 다시 합니다. “성읍리에서는 1978년 6월에 성읍 민속 보존 위원회를 만들고 스스로가 민속을 보존, 발굴, 전승하며 이를 국내외에 소개한다는 목적하에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꼭 같은 페이지 주에 내려가면 조그맣게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하면”그들의 최대관심사는 민속촌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이익이 마을에 돌아올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전승하고 보존하는 그 주민들의 의도가 과연 그 자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주에 달아는 것처럼 경제적인 것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사람이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동물원속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그들 자신의 대책을 강구하게 마련인 것을 끊임없이 원숭이만 되어 있으라는 강요는 천만부당항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려는 이런 식의 권유와 강요는 어불성설임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너 그럼 대신 들어가 있어라,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이지마는 좀 지나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다보려는 토론이라는 것은 듣는 분들 흥미진진하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야된다는게 저의 지론입니다. 아까 서선생님께서 관광객이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관광객 지가 돈이 많아서 들어오면은 지 보고 싶은 것 보고 돌아가라 이겁니다. 관광객의 대부분은 가진 겁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지금 못 가진 자란 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비대칭성이라는게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관광객 대부분들이 가진 자인데, 그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보는 댓가로, 이게 이상한 시장 경제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왜 못 가진 주민이 가진 자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국제관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위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세계체제론에 걸리게 되면은 국제관광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종속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 보존에 관한 문젠데, 아까 문화의 상품화란 개념만 던지고 설명을 안했습시다라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스페인 쪽의 북쪽에 블란서와 국경이 있는 곳에 바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스크의 후헨테라라비아의 알라르데라라는 의례를 관광 지정, 그걸로 정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해라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도 아이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어서 좋겠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그 의례에 나가서 자진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문화가 상품화, 다시말하면 문화라는 것이 치약팔듯이, 빵팔듯이 상품화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지역 주민자체도 자기 문화가 뭔지도 모르게 되고 이거 뭐 상품밖에 안되는 거, 좀 더 극단적으로 또 상징화하면 제주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들하루방, 예, 들하루방 지금 뭐 작게 만들어서 파는 데, 이것도 문화의 상품화 문제에 걸립니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경림 : 감사합니다. 전 교수님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일부러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을 가진 자와 안 가

진자로 이렇게 대칭화시켜 봤을 때는, 그때는 관광이라고 하는 현상은 중국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의 기능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는 항상 관광의 현상에서 따르고 있고 또 전교수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관광이 기능하는 측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는 그걸 꼭 관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안붙였다 뿐이지, 실은 과거의 인류문화라고 하는 것, 문화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은 따지고 보면 관광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다, 가진 자든 또는 못 가진 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왔다, 그래서 문화가 발전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워왔던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그러한 본질적인 측면은 아직도 관광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시 살아남는 것이고, 예컨대 세계의, 아까 예를 든 그것은 경우에 따라 극단적인 경우지마는 그러나 제주도도 현지 주민인 우리 자신들도 아마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은 갖지 않을게 아니냐, 그런 관계설정엔 아직은 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주도 문화발전은 단테와 마찬가지로 상생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의 어떤 원시적인 생활을 현재 온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을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 반드시 세계관광뿐만 아니라 국내관광의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 선인들이 얼마만큼 억척스럽게 그 생활의 예지를 갖고 살아왔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도 동물원 안의 원숭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저희들은 그리고 또 현지 주민들은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증지를 결국은 심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장 :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립된 상황에서 얘기가 복잡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선생님은 보존을 하자, 서선생님은 보존과 개발 그것이 대립되는 관념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화를 찾아야 하겠다. 그런 얘기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토론은 여기서 일단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